

## 육진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두만강 이북에 분포되어 있는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전 학 석

<차 례>

1.	1.1. 두만강 이북의 육진방언 분포	2.3.5. 자음의 약화
	1.2. 두만강 이북의 육진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2.3.6. 자음의 탈락
	1.3. 음운전사기호	2.3.7. 어중음 [b]
2.	2.1. 육진방언의 음운체계	2.3.8. 어중음 [s]
	2.1.1. 홀모음체계	2.3.9. 어중음 [g]
	2.1.2. 겹모음체계	2.3.10. [j] : [i] 대응
	2.1.3. 자음체계	2.3.11. [t → l] 교체
	2.2. 육진방언의 음운결합	2.3.12. [k], [p]의 받침소리
	2.3. 육진방언의 음운변화	2.4. 육진방언의 운율적 자질
	2.3.1. 모음조화	2.4.1. 운율적 자질의 측면에서
	2.3.2. 앞모음화	2.4.2. 음조형
	2.3.3. [ʌ] (ㆍ) → [o] (ㅓ)	2.4.3. 음조변화
	2.3.4. 구개음화	3. 맺음말

1

### 1.1 두만강 이북의 육진방언 분포

두만강 이북에 육진방언이 분포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세기 중엽이후 육진방언 소유자들이 두만강 이북으로 대량 이주하면서 부터이다. 물론 19세기 중엽이전에도 이미 일부 육진방언 소유자들이 두만강 이북에 이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나 거주 지역의 범위로 보아 그것으로는 육진방언의 분포를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두만강 이북의 육진방언 분포는 육진방언 소유자들이 대량으로 두만강 이북에 이주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진방언 소유자들이 대량으로 두만강 이북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청정부(淸政府)가 두만강 이북에 대한 봉금령(封禁令)을 폐지한 이후부터이다.

1644년 청나라 군대가 북경으로 들어간 뒤를 이어 동북에 있던 여진족 부락도 대

부분 군대를 따라 산해관(山海關)이남으로 들어갔다. 그후 1677년에 청정부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천여리 되는 지역을 청조발상지(淸朝發祥地)로 정하고 봉금(封禁)을 실시하였다. 즉 이 봉금구역내에서는 밭을 일구거나 산삼을 캐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벌목을 하거나 수렵을 하는 것도 엄금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두만강 이북으로 넘어오는 이주민은 날따라 늘어났다. 특히 19세기 중엽이후부터는 이주민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청정부는 변방을 강화하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점차 봉금을 폐지하고 개간민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1875년에는 봉천성(현재 요녕성과 길림성의 동남지역)에서 봉금령을 폐지하였고 1885년에는 두만강 이북에 대한 봉금령도 폐지하고 두만강 이북의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되는 지역을 개간구역으로 만들었다<sup>1)</sup>.

현재 연변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육진방언 소유자들은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두만강 이북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20세기 20~30년대에 와서는 벌써 현재 볼 수 있는 바와같은 거주상태가 기본상 형성되었다.

현재 육진방언 소유자들은 연변의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훈춘, 도문, 용정 등 지방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육진방언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역시 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과 두만강을 사이 두고 있는 경신, 반석, 삼가자, 영안, 밀강, 양수, 월청, 개산툰, 삼합 등의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국어방언의 분포를 구획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지역이 육진방언의 주요 분포지역으로 구획된다.

## 1.2 두만강 이북의 육진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중국에서의 육진방언에 대한 조사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11월부터 1964년 1월까지 연변역사언어연구소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과에서 연합으로 육진방언구역에 속하는 훈춘시의 진교향과 연안향에 내려가 언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언어조사보고서는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작성되지 못하였다.

1981년 2월부터 1982년 3월까지의 사이에 필자가 훈춘지방을 중심으로 37개 조사지점에 내려가 방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는 1982년 9월에 “훈춘지구 주요 방언의 음운 수와 그 체계”라는 제목으로 연변대학 학보에 발표되었고 1987년 3월에 “훈춘 지방말의 어음론적 특성”이란 제목으로 조선어문석사논문집(요녕민족출판사)에 발표

1) “조선족간사”, 조선족간사 집필조, 1986년, 연변인민출판사

되었다.

1981년 9월 필자는 몇몇 조사원들과 함께 육진방언구역에 속하는 도문시의 월칭향에 내려가 방언조사를 하였다.

198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중국 조선어실태조사대”에서는 동북 3성의 13개 지점에 내려가 언어실태를 조사하였고 1983년에는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서” 집필조에서 위의 13개 지점에 대한 보충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지점 가운데의 하나가 육진방언구역에 속하는 훈춘시 경신향 회룡봉촌이다. 이 조사결과는 “조선어 방언조사보고”(1990, 연변인민출판사, 중문판)와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1993, 민족출판사, 요녕민출판사, 한글판)에 각각 반영되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두만강 이북에 거주하고 있는 육진방언 소유자들을 통하여 조사한 방언자료를 가지고 육진방언의 음운론적 특성을 귀납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종전에 홀시되어왔던 육진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대하여서도 언급한다.

### 1.3 음운전사기호

ㄱ	ㄲ	ㅋ	ㅇ					
k, g	k'	k'	ŋ					
ㄷ	ㄸ	ㅌ	ㄹ					
t, d	t'	t'	ɺ					
ㅍ	ㅑ	ㅑ	ㅁ					
p, b	p'	p'	m					
ㅅ	ㅆ		ㄴ					
s, ʃ	s', ʃ'		ɺ, l, ɺ					
ㅈ	ㅊ	ㅊ						
tʃ, dʒ	tʃ'	tʃ'						
ㅎ								
h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a	ə	o	u	i	i	ɛ	e	ø
y, wi								

ㅏ	ㅑ	ㅓ	ㅕ	ㅗ	ㅛ	ㅜ
ja	jə	jo	ju		je	je
ㅛ	ㅕ				ㅛ	ㅕ
wa	wə				wɛ	we
ㅡ						
ㅢ						

## 보충기호:

(	-- 한 음절 내에서의 발음
˘	-- 비음화
:	-- 장음
.	-- 고음

## 2

## 2.1 육진방언의 음운체계

## 2.1.1 흘모음체계

육진방언의 흘모음에는 [ø], [y]가 없다. [ø]는 육진방언에서 주로 [wɛ]로 발음되며 [y]는 육진방언에서 주로 [wi] 또는 [ui]로 발음된다. [ui]는 전통적인 방언소유자들의 발음에서 나타난다.

예1:	webak'wi (외바귀),	swedɟul (쇠줄)
	wɛsamtɕ'un (외삼촌),	wɛnp'al (왼팔)
	hwɛsɛk (회색),	wɛnson (왼손)

예2:	tɕwi (쥐),	swida (쉬다)
	t'wida (뛰다),	komtɕ'wi (곰취)
	taɕnagwi (당나귀),	kilk'wi (글귀)
	kui (귀),	pak'ui (바귀)

어떤 학자는 육진방언에 흘모음 [y]가 있다고 하였다<sup>2)</sup>.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

하면 육진방언에는 홀모음으로서의 [y]가 없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육진방언에서는 [y]가 홀모음으로서가 아니라 겹모음으로 나타난다.

육진방언에 홀모음 [ø], [y]가 없다는 것은 육진방언의 앞모음화 현상에서도 증명된다. 육진방언에서는 [a], [ə]의 앞모음화 현상은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o], [u]의 앞모음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육진방언에서는 [a], [ə]의 앞모음화는 활발히 진행되지만 [o], [u]의 앞모음화는 거부된다. 이것은 육진방언에 홀모음 [ɛ], [e]는 있어도 [ø], [y]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육진방언에서 개별적으로 [o], [u]의 앞모음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이 홀모음 [ø], [y]로가 아니라 겹모음 [we], [wi]로 실현된다.

예:       nwegida (늑이다)  
              swigida (숙이다)

또 어떤 학자는 육진방언에 홀모음 [ɛ], [e]의 음운론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sup>3)</sup>, 어떤 학자는 육진방언에서 홀모음 [ɛ]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sup>4)</sup>.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홀모음 [ɛ], [e]는 육진방언에서 부동한 음운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육진방언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발음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kɛ (개·狗)	ke (개·蟹)
nɛ (내·我)	ne (네·你)
sɛ (새·鳥)	se (세·稅)
tɛda (대다·接觸)	teda (테다·燙)
mɛda (매다·系)	meda (메다·挑)
pɛda (배다·密)	peda (베다·瞞)

2) “조선어방언학”, 한영순, 197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 “육진방언연구”, 한두복, 1962, “조선어학”2.  
4) “조선어방언학”, 한영순, 197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이것은 육진방언에서 [ɛ], [e]가 각각 독자적인 음운으로서 음운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육진방언에 [pe](베·布)를 [pɛ](배·布)라고 발음하거나 [nerida](내리다)를 [nerida](네리다)라고 발음하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부는 음운변화의 방언적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일부는 수의적 발음현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육진방언에서 [ɛ], [e]를 부동한 음운으로 잡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육진방언에 홀모음 [ɪ]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겹모음 [-]가 홀모음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sup>5)</sup>. 한영순은 [ɪ]는 [ɨ]와 같이 높은 모음이지만 [ɪ]와 [ɨ]는 다만 높이의 정도에서만 구별되는 음운이라고 하였으며<sup>6)</sup>, 김영황은 [ɪ]는 혀의 높아지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따라 [ɨ]와 대립된다고 하면서 [ɨ]와 [ɪ]는 같은 높은 모음들이지만 [ɨ]는 앞모음이고 [ɪ]는 가운데 모음이라고 하였다<sup>7)</sup>.

그러나 필자는 육진방언에서 [ɪ]가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음운론적 대립을 이루면서 홀모음체계에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육진방언의 홀모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i	i	u
e	ə	o
ɛ	a	

### 2.1.2 겹모음체계

육진방언에는 겹모음 [ɨi]가 없다. 겹모음 [ɨi]는 육진방언에서 주로 [i], [e]로 발음되며 개별적으로 속격토 [ɨi]가 입술소리 아래에서 [u]로 발음되기도 한다.

예1: isa (의사·醫師),

igen (의견)

5) “조선어방언학”, 김영황, 198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6) “조선어방언학”, 한영순, 196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7) “조선어방언학”, 김영황, 198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 한다<sup>8)</sup>.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육진방언에는 된소리와 순환소리의 음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육진방언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pul (불·火)	p'ul (뿔·角)
tal (달·月)	t'al (딸·女兒)
sal (살·肌肉)	s'al (쌀·米)
tʃada (자다·眼)	tʃ'ada (짜다·識)
kol (골·頭)	k'ol (꼴·模樣)

이것은 육진방언에서 된소리와 순환소리가 음운론적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필자는 육진방언의 자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p	t	s	tʃ	k	h
p'	t'	s'	tʃ'	k'	
p'	t'		tʃ'	k'	
m	n	r		ŋ	

## 2.2 육진방언의 음운결합

육진방언에는 한 음절안에서 모음의 앞이나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연속되거나 자음 [ŋ]이 어두에서 모음과 결합되는 경우는 없으나 자모음의 결합에서 다른 방언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2.2.1 혀앞소리 [t, t']과 겹모음 [ja, jə, jo, ju]가 자유롭게 결합된다.

평안도방언에서는 [t, t']과 겹모음 [ja, jə, jo, ju]가 결합될 경우 겹모음의 앞요소 [j]를 빼버리고 [tjot'a → tot'a], [t'jalk'il → t'alk'il] 등과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 있지만 육진방언에서는 혀앞소리 [t, t']과 겹모음 [ja, jə, jo, ju]가 그대로 결합된다.

8) “육진방언연구”, 한두복, 1962, “조선어학”2.



예:	tjaŋmadaŋ (장마당)	tjæŋgi (전기)
	tjoʃjæn (조선)	tjot'a (좋다)
	t'jændi (천지)	t'jændik'ot (천지꽃)
	t'jælk'il (철길)	t'jæp (침)
	t'jæt'juk (저축)	

2.2.2 혀앞소리 [s, ʃ, tʃ]과 겹모음 [ja, jə, jo, ju]가 자유롭게 결합된다.

예:	ʃjaŋdjæm (상점)	ʃjærin (서른)
	ʃjaŋnjæn (상년)	ʃjæul (서울)
	tʃjok'om (조금)	tʃjuin (주인)
	tʃ'jorŋɔŋ (초롱)	tʃ'juŋdʒjæl (춘절)

2.2.3 혀앞소리 [n]이 어두에서 [ja, jə, jo, ju, i]와 자유롭게 결합된다.

중부방언을 비롯한 많은 방언들에서는 [n]과 [ja, jə, jo, ju]가 결합될 경우 [n]을 탈락시키고 평안도방언에서는 겹모음의 앞요소 [j]를 빼버리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육진방언에서는 [n]과 [ja, jə, jo, ju, i]가 그대로 결합된다. 그러므로 육진방언에서는 역사적 어두음 [n]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예:	njaŋbək (이백)	njædʒa (녀자)
	njærim (여름)	njæpk'uri (옆구리)
	nimɛ (이마)	nibul (이불)
	nilgop (일곱)	nip (잎)
	nilgəra (읽어라)	nirənara (일어나라)

2.2.4 육진방언에서 한자어의 첫소리 [r]이 어두에서 겹모음이나 홀모음과 결합될 경우 [n]으로 바뀌어 겹모음이나 홀모음과 결합된다.

예:	njaŋʃik (양식)	njaŋʃim (양심)
	njæks'a (역사)	njæŋgam (영감)
	njɔŋdjæŋ (용정)	njukʃ'ip (육십)

nibal (이발)	niiik (이익)
noin (노인)	nodorŋ (노동)
naŋbi (낭비)	neŋmen (냉면)

## 2.3 육진방언의 음운변화

### 2.3.1 모음조화

육진방언은 다른 방언들에 비하여 모음조화현상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어간내부에서의 모음조화:

abaɟʒi (아버지)	nagane (나그네)
sɛbak (새벽)	ogom (오금)
kodori (고두리)	tʃomandʒi (주머니)
modo (모두)	pɛtʃ'ɛ (배추)
sogom (소금)	todok (도둑)
tʃjok'om (조금)	posop (보습)
sut'ul (숫돌)	puɟʒuk (부족)
karapt'a (가렵다)	marapt'a (마렵다)
tʃ'agapt'a (차겁다)	k'ɛk'adʒada (깨끗하다)
t'at'asada (따뜻하다)	

용언어간과 토 사이의 모음조화:

kagara (가거라)	onara (오너라)
mɛɟʒatt'a (맺었다)	pɛɟʒatt'a (뻗었다-워었다)
s'awatt'a (싸웠다)	pɛwatt'a (배웠다)
'watt'a (채웠다)	t'ɛwatt'a (태웠다)
tot'att'a (다투었다)	kattʃ'att'a (가추었다)
kadatt'a (가두었다)	modatt'a (모두었다)

2.3.2 앞모음화

육진방언에서 [a], [ə]가 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서 앞모음 [ɛ], [e]로 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예:	pebi (밥이)	neɱmi (남이)
	tʃɛmi (잡이)	tʃ'ɛmbit (참빗)
	pebi (법이)	kusegi (구석이)
	nuns'ebi (눈썹이)	isegi (이삭이)
	tɛpp'en (답변)	tʃɛgek (자격)
	kɛŋben (강변)	hɛkk'jo (학교)
	segwi (석유)	hembeŋ (헌병)

뿐만 아니라 육진방언에서는 [ja], [jə]도 [i]나 [j]앞에서 [je], [je]로 되는 현상이 있다.

예:	jɛgi (약이)	jeŋgil (연길)
	jemp'il (연필)	jeresit (열여섯)

그러나 육진방언에서 [o], [u]가 [i]나 [j] 앞에서 앞모음 [ø], [y]로 되는 현상은 없다. 개별적으로 [o], [u]가 [i]나 [j] 앞에서 [we], [wi]로 되는 현상은 발견된다.

예:	nwegida (녹이다)	nerɛk (노력)
	swigida (숙이다)	tʃwigida (죽이다)

앞모음화와 관련하여 육진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발음도 특징적이다.

moɔʒɛ (모자)	kilʃ'ɛ (글자)
puɔʒɛ (부자)	tʃ'omɛ (치마)
nime (이마)	kame (가마)
səŋmɛ (석마)	t'andʒɛ (탄자-담요)
tanʃ'wi (단추)	ɛŋdwi (앵두)

tʃəlgwi (절구)	pandwi (반두)
salgwi (살구)	andʒwi (안주)

[u]가 [wi]로 발음되는 단어들에서는 또 [wi] → [i]와 같이 [w]가 탈락되고 [i]만 발음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음은 주로 일반 주민층에서 나타난다.

예:	tantʃ'u	>	tantʃ'wi	>	tantʃ'i
	pandu	>	pandwi	>	pandi
	palgu	>	palgwi	>	palgi
	andʒu	>	andʒwi	>	andʒi

### 2.3.3 [ʌ] (.) → [o] (ㅓ)

육진방언에서는 역사적인 [ʌ]음이 일부 단어에서 [o]로 발음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입술소리 아래에서 그 잔존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예:	porom (바람)	popt'a (뺨다)
	p'ori (파리)	p'ol (팔)
	pot (팔)	modabaji (말아버지-큰아버지)
	tot'oda (다투다)	tolŕi (달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발음은 경흥지방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2.3.4 구개음화

육진방언에서는 [t, t', t']이 [ja, jə, jo, ju, i]와 결합될 경우 구개음화하지 않는다.

예:	tjaŋma (장마)	tjoŋŋen (조선)
	tiŋju (지주)	t'irjo (치료)
	t'ikt'a (찍다)	t'itt'a (짚다)
	k'it'i (끝이)	kat'i (갈이)

madi (말이)

hikp'adi (흙밭이)

육진방언에서는 [k, k', k']이 [ja, jə, jo, ju, i]와 결합될 경우에도 기본상 구개음화하지 않는다.

예: kimtʃ'i (김치)  
kil (길)  
kjət (결)  
k'i (키·箕)

kiɾim (기름)  
kiduŋ (기둥)  
kjəul (겨울)  
k'ida (끼다)

그러나 일부 주민층에서는 구개음화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예: tʃimtʃ'i (김치)  
tʃiwɛ (기와)

tʃiduŋ (기둥)  
tʃət'e (결에)

육진방언에서는 [h]이 [ja, jə, jo, ju, i]와 결합될 경우에도 기본상 구개음화하지 않는다.

예: hjəŋde (형제)  
hjuŋŋjən (흥년)

him (힘)  
hjoɕʒa (효자)

그러나 “혀”를 [se], “힘줄”을 [simtʃ'ul] 또는 [simok]으로 발음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 2.3.5 자음의 약화

육진방언에서 자음의 약화현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을 든다면 [ŋ]의 약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육진방언에서 [ŋ]은 모음사이에서 약화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이 경우 [ŋ]이 약화되어 발음되지 않는 음절이 비음화한다.

예: t'ai (땅이)  
mjəi (명이)

sɛil (생일)  
wai (왕이)

poks'ue (복숭아)

soe (송어)

madae (마당에)

sejjae (세상에)

또 육진방언에서는 [ŋ]을 가진 체언과 대격토가 어울릴 경우 모음사이의 [ŋ]이 약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k'oŋ + il	> k'oi	> k'ø: (콩을)
tʃ'oŋ + il	> tʃ'oi	> tʃ'ø:i (총을)
t'aŋ + il	> t'ai	> t'a: (땅을)
pjəraŋ + il	> perai	> pera: (벼랑을)

육진방언에서는 [ŋ]이 모음사이에서 약화되어 발음되지 않으면서 원래 [ŋ]을 가지고 있던 음절과 그 뒤의 음절이 어울려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도 특징적이다.

soŋaɕʑi	> soaɕʑi	> swe:ɕʑi (송아지)
kaŋaɕʑi	> kaɕʑi	> ke:ɕʑi (강아지)
maŋaɕʑi	> maɕʑi > me:ɕʑi	(망아지)
puəŋi	> puəi	> pue (부엉이)
kolp'aŋi	> kolp'ai	> kolp'ɛ (골팡이)

### 2.3.6 자음의 탈락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의 [l]탈락:

육진방언에서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 웃형태부의 받침 [l]이 아래 형태부의 첫소리 [n, t, s, tʃ]을 만날 경우 일부 단어에서는 [l]이 탈락되지만 일부 단어에서는 [l]이 탈락되지 않는다.

탈락되는 것:

midadi (미단이)

panidʑil (바느질)

nibuɕʑari (이부자리)

tʃ'adol (차들)

탈락되지 않는 것:

sollɛŋgi (소나무)	puls'ap (부삽)
pəðillɛŋgi (버드나무)	hwals'al (화살)

용언어간과 토 사이에서의 [l] 탈락:

육진방언에서 용언의 어간끝소리 [l]이 [n, t, p, s, ɔ]를 첫소리로 하는 토와 어울릴 경우 탈락된다. 여기에서 용언의 어간끝소리 [l]이 [n, p, s, ɔ]를 첫소리로 하는 토와 어울릴 경우 탈락되는 것은 표준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상할 것 없지만 [l]이 [t]을 첫소리로 하는 토와 어울릴 경우 탈락되는 것은 이 방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예:	məðɛŋit'a (멀지않다)	mudimara (묻지말라)
	jəðimara (열지말라)	udɛŋik'u (울지않고)
	kadimao (갈지마오)	udaga (올다가)
	sadaga (살다가)	

### 2.3.7 어중음 [b]

육진방언에서는 역사적 어중음 [b]이 보존되어 있다.

예:	pəbəri (병어리)	t'abari (따리)
	haburemi (홀어미)	haburebi (홀아비)
	nibe (누에)	nɨburi (노을)
	hobak (확)	kobaŋ (괭)
	malɛ (마름)	sɛbi (새우)
	ubon (우엉)	
	jəbida (여위다)	kubulda (구을다)
	tʃabulda (졸다)	kibulda (기을다)

용언의 어간끝소리 [p]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어울릴 경우 정격활용한다.

예:	koba (고와)	kobasə (고와서)
	nubə (누워)	nubəsə (누워서)

təbə (더워)	təbəsə (더워서)
mibə (미워)	mibəsə (미워서)

### 2.3.8 어중음 [s]

육진방언에는 역사적 어중음 [s]이 보존되어 있다.

예:	kasil (가을)	kasɛ (가위)
	kisim (김)	kusi (구유)
	nasi (냉이)	nuntʃ'asi (눈자위)
	mosi (모이)	tʃ'isim (즈음)

용언의 어간끝소리 [s]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어울린 경우 정격활용한다.

예:	nasa (나아)	nasiji (나으니)
	nisə (이어)	nisiji (이으니)
	tʃ'osa (쪼아)	tʃ'osiji (쪼으니)
	pusə (부어)	pusiji (부으니)
	tʃusə (주어)	tʃusiji (주으니)

### 2.3.9 어중음 [g]

육진방언에는 어중음 [g]도 나타난다.

예:	kalgi (가루가)	kalgi (가루를)
	tʃalgi (자루가)	tʃalgi (자루를)
	nanɡgi (나무가)	nanɡgi (나무를)
	sulgi (수레가)	sulgiri (수레를)
	məlgi (머루가)	məlgiri (머루를)
	pəlgi (벌레가)	pəlgiri (벌레를)

### 2.3.10 [i] : [i] 대응

국어 표준어에서는 역사적으로 [s, tʃ, tʃ'] 밑에 오던 [i]가 경구개음 [s, tʃ, tʃ']의 영



향으로 [i]로 바뀌었으나 육진방언에서는 [s, tʃ, tʃʰ]밑에 그대로 [i]가 결합된다.

예:	siŋgəpt'a (싱겁다)	silt'a (싫다)
	tʃimsiŋ (짐승)	tʃilda (질다)
	tʃ'ida (치다)	aʃ'im (아침)
	metʃ'il (며칠)	tʃ'itt'a (찢다)

### 2.3.11 [t → l] 교체

육진방언에서는 표준어에서와 같이 용언의 어간끝소리 [t]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어울릴 경우 [t → l] 교체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주민층에서는 용언의 어간끝소리 [t]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어울릴 경우에도 [t]을 [l]로 발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방언소유자들의 발음은 아니다.

예:	kəllinda (걷는다)	kəls'o (걸소)
	tjllinda (듣는다)	tjls'o (들소)
	sillinda (신는다)	sils'o (신소)

### 2.3.12 [lk], [lp]의 받침소리

들받침 [lk], [lp]은 육진방언에서 각각 [k], [p]으로 발음된다.

예:	tak (닭)	hik (흙)
	pakt'a (밟다)	makt'a (맑다)
	popt'a (밟다)	japt'a (얹다)
	nəpt'a (넓다)	ʃjəpt'a (섞다)

## 2.4 육진방언의 운율적 자질

2.4.1 운율적 자질의 측면에서 언어를 강세언어, 음조언어, 음장언어로 분류한다면 육진방언은 음조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육진방언에서는 어음의 장단이나 강약보다는 고저 즉 음조가 주요한 운율적 특성으로 표현된다. 육진방언의 음조는 단어의 음절수나 어두자음의 성질(순한소리인가,

거센소리인가, 된소리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따라 [저]조 또는 [고]조가 없히는 위치가 결정된다. 즉 육진방언은 자유음조를 가지고 있다.

육진방언이 가지고 있는 이와같은 음조적 특성은 고정음조를 가지고 있는 평안도 방언의 음조적 특성과 구별된다. 평안도방언에서는 음조가 음절수에 의하여 예측된다. 예를들면 평안도방언에서는 2음절일 경우에는 첫음절이 좀 높게 발음되고 3음절일 경우에는 가운데 음절이 좀 높게 발음되며 4음절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음절이 좀 높게 발음된다.

그러므로 평안도 방언에서는 “나라”라고 할 때에는 [고저]조로, “나라를”이라고 할 때에는 [저고저]조로, “나라에서”라고 할 때에는 [저저고저]조로 발음된다. 보다시피 평안도 방언에서는 “나라”라는 말이 음절수의 변화에 따라 [고저]로도 발음되고 [저고]로도 발음되며 [저저]로도 발음된다.

그러나 자유음조를 가지고 있는 육진방언에서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음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라고 할 때에는 [저고]조로, “나라를”이라고 할 때에는 [저고저]조로, “나라에서”라고 할 때에는 [저고저저]조로 발음된다. 보다시피 육진방언에서는 “나라”라는 말이 음절수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저고]로 발음된다.

육진방언의 음조는 또 자유음조를 가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의 음조와도 구별된다. 비록 육진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은 모두 자유음조를 가지고 있지만 음조의 단계수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에 얹히는 음조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육진방언과 경상남도 방언을 비교하여 볼 때 음조의 단계수에 차이가 있다. 육진방언의 음조는 [고]와 [저] 두 단계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지만 경상남도 방언의 음조는 [고], [중], [저] 세 단계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육진방언과 경상남도 방언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음조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어	육진방언경상방언	
말(馬)	저	고
말(斗)	고	중
말(言)	고	저

보다시피 육진방언과 경상남도 방언사이에는 음조의 단계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단어에 얹히는 음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진방언의 음조는 중세국어에 반영된 방점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세국어	육진방언
무점(평성)	저
한점(거성)	고
두점(상성)	고

중세국어의 방점과 육진방언의 음조의 대응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세국어의 두점(상성)이 육진방언에서 [고]조와 대응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중세국어의 “상승조”가 육진방언에 와서는 그 발음이 “상승조” 때보다는 짧아지면서 단순한 [고]조로 변화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결과로 현재 육진방언에서는 중세국어의 평성과 거성, 평성과 상성은 음조적으로 구별되지만 거성과 상성은 음조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단어	중세국어	육진방언
배(梨)	평성	저
배(腹)	거성	고
말(馬)	평성	저
말(言)	상성	고
밤(夜)	거성	고
밤(栗)	상성	고

#### 2.4.2 음조형

육진방언에서는 중국어에서와는 달리 매 음절에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음조가 없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단위로 하여 음조형이 없힌다.

육진방언의 음조형을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음조형	단어의 예
저	배(梨), 닭

고	배(腹), 개(犬)
저저	가슬(秋), 아침(早)
저고	아들, 하늘
고저	가지(枝), 구름(雲)
저저저	마음이, 얼굴이(容)
저저고	고사리, 미나리
저고저	버버리(啞), 늙은이
고저저	무지개, 도깨비
저저저저	따따사다(따뜻하다)
저저고저	개나리르(개나리를)
저고저저	늙은이르(늙은이를)
고저저저	도깨비르(도깨비를)

(이하 5음절은 약함)

### 2.4.3 음조변화

육진방언에서의 음조변화는 주로 어간과 토가 어울릴 경우와 어근과 어근이 어울려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 나타난다.

2.3.4.1 육진방언에서는 [고]조로 발음되던 체언 1음절 어간이 토 “-에, -에게, -에서” 등과 어울릴 경우 [저]조로 발음된다.

예:	[고저]	[저고] (또는 [저저])
	물이	물에
	손(手)이	손에

이와같은 음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고 → 저 / # \_\_\_에 (“에”는 “-에, -에게, -에서”를 포함)

2.3.4.2 육진방언에서는 [고]조로 발음되던 용언 1음절(폐음절) 어간(중세국어에서 상성에 해당하는 어간)에서 “곱-(美), 굵-, 씹-, 없-, 작-(小), 좋-(好)” 등을 제

외한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어울릴 경우 [저]조로 발음된다.

예:	[고저]	[저고저]
	담다(裝)	담아서
	굽다(烤)	굽어서

이와같은 음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고 → 저 / # \_\_아 (“아”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를 포함)

2.4.3.3 육진방언에서는 “르 → 리 리” 교체를 하는 [저저]조로 발음되던 용언 2음절 어간이 토 “-아/-어”, “-아서/-어서”와 어울릴 경우 [저]조로 발음된다.

예:	[저저저]	[저고저]
	가르다(分)	갈라서
	바르다(塗)	발라서

이와같은 음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저저 → 저 / # \_\_아 (“아”는 “-아/-어”, “-아서/-어서”를 포함)

2.4.3.4 육진방언에서는 “르 → 리 리” 교체를 하는 [저고]조로 발음되던 용언 2음절 어간이 토 “-아/-어”, “-아서/-어서”와 어울릴 경우 [고]조로 발음된다.

예:	[저고저]	[고저저]
	누르다(壓)	눌러서
	모르다	몰라서

이와같은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저고 → 고 / # \_\_아 (“아”는 “-아/-어”, “-아서/-어서”를 포함)

2.4.3.5 육진방언에서는 [고]조로 발음되던 동사 1음절 어간이 상접미사 “히, 이, 리, 기, 우, 구” 등과 어울릴 경우 [저]조로 발음된다.

예:	[고저]	[저고저]
	들다	들구다(돌리다)
	타다	태우다

이와같은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고 → 고 / # \_\_히 (“히”는 상접미사를 포함)

2.4.3.6 육진방언에서는 [고]조로 발음되던 두 어근이 어울려서 합성어를 이룰 경우 앞의 어근은 [고]조로 발음되고 뒤의 어근은 [저]조로 발음된다.

예:	[고 + 고]	[고저]
	코 + 물	콧물
	꿀 + 벌	꿀벌

이와같은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고 → 저 / 고\_\_

2.4.3.7 육진방언에서는 [고]조로 발음되던 어근이 [저]조 또는 [저저], [저고]조로 발음되는 어근과 어울려 합성어를 이룰 경우 [저]조로 발음된다.

예:	[고 + 저]	[저저]
	발 + 등	발등
	[고 + 저저]	[저저저]
	코 + 구멍	콧구멍

[고 + 저고]	[저저고]
밭 + 바다	밭바닥

이와같은 음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고 → 저 / # \_\_저 (“저”는 [저]조로 시작되는 어근 포함)

### 3. 맺음말

3.1 조선에서 육진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2년 한두복의 “육진방언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를 이어 1967년 한영순의 “조선어 방언학”(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74년 한영순의 “조선어 방언학”(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2년 김영황의 “조선어 방언학”(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8년 정용호의 “함경도방언 연구”(평양·교육도서 출판사) 등에서 육진방언을 언급하였다.

오늘 이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재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육진방언의 음운체계에 대하여서는 학자에 따라 비교적 큰 견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 간단히 그 차이를 귀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 운	한두복 (62)	한영순 (67)	한영순 (74)	김영환 (82)	전학석
i	○	○	○	○	○
e	E	e	e	e	e
ε		× <sup>*</sup>	× <sup>*</sup>	ε	ε
y	×	×	○	×	×
∅	×	×	×	×	×
i	○	○	○	○	○
ə	○	○	○	○	○
a	○	○	○	○	○
u	○	○	○	○	○
o	○	○	○	○	○
† <sup>*</sup>	×	○	×	○	×
비교	7모음	8모음	8모음	9모음	8모음

※† --- 겹모음 [ii]의 홀모음.

※× --- 한영순(67)은 늙은층에는 [ε]가 없고 젊은 층에는 [ε]가 있다고 하였다.

※× --- 한영순(74)은 육진방언에서 [ε]가 아직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자음체계에 대하여서도 한두복은 육진방언에 순한소리와 된소리의 음운론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14자음 체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19자음 체계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육진방언의 음운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육진방언에 대한 연구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3.2 육진방언은 반도의 가장 북단에 분포되어 있는 방언으로서 중세국어의 모습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방언이다.



2단원에서 본 바와 같이 육진방언에서의 적지 않은 음운현상들은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운현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육진방언이 처해 있었던 사회역사적 원인과 자연지리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육진방언에 대한 연구는 국어방언자체의 연구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에도 자못 큰 의의가 있다.

## 부록:조사지점 및 조사대상

조사지점			조 사 대 상			
시, 향, 촌	성 명	성 별	연 령	본 적 지	직 업	
훈춘 경신 회룡봉	김희명	남	81	경흥	농업	
	이기옥	//	69	//	//	
	김영자	여	66	//	//	
	이도포	박룡구	남	71	//	//
		김려빈	//	67	//	//
		김덕수	//	64	//	//
	백석	장관석	//	75	경원	//
		김기업	//	69	//	//
		최덕현	//	68	//	//
	반석 맹령	정영송	//	76	//	//
유홍주		//	73	//	//	
반석	김정숙	여	68	//	//	
	한일선	남	64	종성	//	
	최문선	//	62	온성	//	
도로	황윤칠	//	70	경원	//	
삼가자 서위자	최종해	//	69	//	//	
	최기봉	//	67	//	//	
삼가자	전복순	여	66	회령	//	
신생	박홍범	남	69	경원	//	
	최봉해	//	55	//	//	
영안 사완자	심금녀	여	76	//	//	
	김태운	남	61	//	//	
관문	황용식	//	68	//	//	
영안	장수업	//	73	//	//	
	박회광	//	73	//	//	
	김득송	//	68	//	//	
밀강 동양	김순희	//	73	온성	//	
	밀강	이동수	//	68	//	//
		안성근	//	64	경원	//
해방	한영순	여	68	종성	//	
	최창식	남	63	온성	//	
도문 양수 하서	전성규	//	74	//	//	
	최창화	//	74	경원	//	
	전명순	//	67	온성	//	
양수	오태화	//	73	//	//	
월청 마패	최성림	//	75?	//	//	
	최금녀	여	72	//	//	
	임룡금	남	64	종성	//	